

대구시내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이현숙* · 김정남** · 오윤정***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약물남용은 전 연령층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정서적으로 변화와 갈등이 심한 청소년기가 약물에 쉽게 노출될수 있고 취약성이 큰 시기이며 약물사용이 청소년 비행의 선행요인이 될수 있으며 청소년기는 적응 및 대처 행동 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스트레스, 동료들의 압력, 정서적인 고통등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할 경우 이는 차후 성인기의 약물사용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이길홍 등, 1985 : New comb 등, 1986). Connel (1974)은 청소년기는 기본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고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약물남용이나 의존에 상당히 취약한 시기라 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경우 과열 입시경쟁에 따른 중압감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해소 방안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심리적 중압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전문인과 상의

하지 않은 채로 각종 약물에 의존해 보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약물자체의 해독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조직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신체발육의 지연 및 신체 기능 부조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의학적 후유증이 심각하다. 또 술과 담배를 비롯한 중독성 약물은 쓰게 될수록 거의 남용과 중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 후 폐인이 되기 쉽고, 약물 남용시 무단결석, 성적저하 및 공격적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비행과 범죄의 계기가 된다(김소야자 등, 1993). 한국청소년학회(1994)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년동안에 약물사용으로 허비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가 약 8,5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은 비행 7.4배, 대인폭력 19배를 불러일으키며, 가족들에게 걱정, 잔소리, 화, 슬픔, 욕설, 아버지의 음주 및 부부 싸움 등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약물남용실태는 1960년대 아편, 1970년대 대마초가 주로 남용되다가 1980년대 히로뽕, 1990년대에는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본드, 부탄가스 등 휘발성 물질과 엄격한 규제 또는 관리가 어려운 기침약 등, 일반 약물 남용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코카인과 LSD가 첨가된 복합약물의 남용(poly drug

* 동산의료원 간호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조교

abuse)도 예측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 보사부, 1993 ; 주왕기, 1995).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약물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1989년, 1991년, 1993년, 1996년에 실시되었는데(문화체육부, 1996), 1991년도 의 조사에서, 전국을 5개 직할시와 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분석 대상 수에 따른 비율을 계산 한 결과 대구지방이 129.8%로 가장 약물을 많이 사용했으며, 서울 127.2%, 경기 123.6%, 부산 118.8%의 순이었다. 특히 대구지방은 학교 청소년, 근로 청소년, 소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수면·진정제와 환각제 사용이 각각 6.0%, 6.5 %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사용율을 나타냈다(김소야자 등, 1991).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이런 높은 약물사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문계와 실업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구지역의 연구는 최한곤(1992)의 연구밖에 없었으며, 본드, 신나, 부탄가스, 각성제, 음주, 흡연, 헤로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외의 다른 약물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재 대구시내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남용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약물남용 예방 대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약물남용실태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3) 대상자 부모의 음주, 흡연실태와 약물복용 태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 부모의 약물복용 태도와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 비행경험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6)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한다.
- 7) 가정 역동적 환경과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약물남용

약물남용이란 정신을 향하여 작용하는 물질을 행동, 인식력 그리고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자의에 의한 불법적, 비의학적 사용을 말하며(주왕기, 1995), 본 연구에서는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 술, 담배의 9가지 약물의 사용경험을 의미하며, 7가지 약물(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의 남용은 1회 이상 경험한 경우이며, 술과 담배는 1년에 1-2회 이상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법률적 개념으로 형사책임에서 연령 상 성인범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념이며, 재판의 대상이 되는 비행과 과거에 객관적 행위 및 장래에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며, 사회적으로 안정과 믿음 사회규범과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소년의 모든 행위를 말하며(청소년 백서, 1996), 본 연구에서는 심한 반항, 무단결석, 학교에서의 처벌, 가출, 경찰서 보호, 상점에서의 절도, 흥기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 금품갈취, 패싸움 등 10가지 중 1가지 이상의 비행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3) 가정 역동적 환경

가정 역동적 환경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위,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족원간의 화합도와 연관되어 파생되는 가정의 심리적 풍토를 뜻하며(김현수 등, 1992 : Le Blanc, 1992), 본 연구에서는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정 만족도, 부친의 양육태도, 모친의 양육태도의 영역별 측정내용을 말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연구의 대상은 대구시내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 임의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고등학교 학생으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2)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마약제, 흡입제, 환

각제 등의 사범들을 철저히 단속하는 현 사회적 실정에서 학생들의 부정확한 응답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II. 문헌고찰

1. 약물남용

약물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의 개념 외에 인간의 정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substance) 전반을 총칭한다. 따라서 술이나 담배를 비롯하여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본드, 가스, 신나와 같은 유기용제도 인간의 정신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므로 약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며, 대마,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류가 모두 약물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며, 니코틴, 헤로인, 코케인, 알코올, 카페인, 마리화나 등이 흔히 사용되는 약물이었다(김경민, 1990; Stanhope와 Lancaster, 1996).

약물남용은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향정신성 약물은 정신을 향해서 작용하는 약물 즉, 정신에 작용하는 약물을 말하는데 정신은 뇌에서 나오고 뇌는 중추신경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은 곧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은 약물을 의학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진해제를 기침을 하지 않는 데도 묘한 감정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주왕기, 1995).

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남용을 '의학적 감독 없이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빈번히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소야자 등(1993)은 어떤 약물을 계속해서 오용할 때나 또는 약물의 사용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혹은 약물복용이 개인의 가족, 직업 및 기타 사회적 기능수행 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때를 약물남용이라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약물남용이라 하면 흔히 마약류나 법으로 금지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술과 담배, 카페인 등이 가장 흔한 약물남용의 원인이 된다. 이런 물질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으나 실생활에서 흔히 유통될 뿐만 아니라 구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부담 없이 남용하여 비행의 원인이 되고 있고(부산시교위, 1990), 담배의 성분인 Nicotine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알코올의 중독적 성분과 유사하다(Barbara, 1993).

약물남용에 관한 의학적, 법적, 약학적 의미 이외도, 약물남용이란 주어진 문화환경내에서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고 인정된 방법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자가투여에 의하며, 어떤 약물의 사용 행위가 남용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약물의 사용정도 보다 약물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따르므로 문화와 시대의 차이에 따라, 혹은 동일한 문화라고 하더라도 상황의 차이에 따라 약물남용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대마초를 한 번 피우는 것은 약물남용이라 간주되나, 담배를 몇 갑씩 피우는 것은 약물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김성이 등, 1989; 김소야자, 1991).

2. 청소년들의 약물 남용에 관한 연구

약물남용은 원래 원주민들의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지만, 현대적 의미를 갖는 약물남용 행위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들 젊은이들에 의해서 전세계에 퍼졌다(주왕기, 1995). 그러나 미국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 약물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온 결과, 1986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제외한 약물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주왕기(1995)는 그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은 많다고 하였다.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숙련(1996)의 연구에서 실업계 학생이 음주경험, 흡연경험, 혐의의 약물남용(본드 및 흡입제, 각성제, 환각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대마, 마약 기타)경험율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기가 교육학적 측면에서 학업에 종사하는 시기이므로 성적 불량 등 학교에서의 부적응 현상이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과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성적 불량으로 인한 학교생활에서의 흥미 저하와 다른 흥미 추구로 인한 불량 교우관계는 약물남용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된다(최선화, 1996).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학교 성적이 나쁘며,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느낄수록 약물사용 경험이 많았고(김현수 등, 1989), 김소야자 등(1993)의 연구에서 학교성적이 높은 경우 약물사용 비율이 낮았고, 학교성적이 낮은 경우 약물사용 비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소속되어 있는 동료 집단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행동을 시험하고 자신의 주체성 확립을 추구하기 위하여 같은 나이의 또래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수용하려는 강한 욕구가 있으며, 이런 동료압박(Peer Pressure)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 약물남용의 가능성이 커진다(Elliot, 1985 ; Kandel et al, 1975 ; Plant, 1975).

West(1977)는 비행의 한 요인으로 음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고, 김성이 등(1989)의 연구에서 무단결석이 흡연을 시작한 직후인 13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김숙경(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음주경험 대상자의 비행은 술집출입 (58.2%), 음란비디오 관람 (54.9%), 무단결석 (21.9%)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길홍 등(1985)의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약물 사용 경험이 3-4배 가량 많았으며, 청소년들이 정신 활성 물질을 사용할수록 비행성향이 높아지고, 또한 담배, 알코올, 흡입제, 환각제 등이 비행의 매체가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Fawzy는 부모들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은 청소년 자녀들의 약물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와, 또는 자녀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진 경우 보다 쉽게 약물을 남용하며(이숙련, 1995), 김성이 등(1989)은 부모의 약물복용태도와 청소년의 각성제 및 안정제 사용과 관련이 높다고 하여, 부모가 약물문제, 음주문제를 가진 자녀일수록 더 약물남용에 심하게 빠진다고 하였다.

Kandel 등(1975)은 약물사용은 단계적인 양상을 나타낸다는 단계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청소년의 약물 사용은 맥주나 과일주 : 담배와 독한 술 : 대마초 : 불법적 약물(향정신성 의약품 포함)의 4단계로 진행되어 간다고 하였고, 김소야자(1991)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대개 담배, 술에 손을 대다가 약물을 섭취하게 되며 다시 만성적인 술이나 마약을 복용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이 등(1989)의 연구에서는 흡연은 음주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다음은 본드, 최면제, 대마초, 각성제, 순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청소년들은 한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3. 약물남용과 가정 역동적 환경과의 관계

Knight(1937)는 모친-자녀관계에서 모친이 자녀를 지나치게 과잉보호할 때, 조기 발달기에 모친이 거부적 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모친에 대한 의존적 욕구가 좌절되어 과음하거나 상습적 음주행위를 초래하고, 김숙경(1992)은 가족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음주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의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태도나 사용도 청소년 약물 사용과 큰 연관성이 있는데, 잘못된 가족 결합, 부정적 의사소통양상, 비현실적 부모의 기대, 부모와의 격리를 포함한 역기능적 가족체계는 청소년의 약물사용 위험을 증가시킨다(Andrews 등, 1991 ; Friedman와 Utada, 1992 ; Swadi, 1992 ; Wills 등, 1992).

Textor(1987)는 가족역동은 약물남용의 주요 요소이며, 역기능 가족의 증상이라고 하여, 약물남용자의 가족은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였고, Newcomb 등(1983)은 부모, 특히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에게 약물을 사용하도록, 혹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모델이라고 하여 일관성이 없는 부모, 수동적인 부모, 부모에 대해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약물남용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Maloff와 Becker(1982)는 양친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복용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양친의 거부, 이혼 등이 약물남용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가 무관심하거나 과보호 적일 때 약물사용 경험율이 높고, 부모의 양육형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약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심리풍토중 가정안전도, 부모의 기대 수준, 가족간 마찰, 가족의 가정만족도, 모친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약물사용군이 비약물사용군에 비하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고홍경, 1990 ; 이길홍 등, 1991 ; 이숙련, 1995).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가족 환경이 청소년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구시내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남용 관련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내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73명으로서 표본추출방법은 대구시내 남 녀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이 약 1.5 대 1의 비율이므로, 균등한 분포를 위하여 인문계는 대구시의 7개 구를 세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남 녀 각 1개교씩, 실업계는 두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남 녀 각 1개교씩 모두 10개교를 임의추출하여 각 학교마다 2학년중 2개 학급씩 임의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연구자가 직접 고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본 연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한 후 각 학급별 50분의 시간을 할애 받아 설문지를 배포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고, 배포된 설문지 총 1019부 중 1008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기재가 미비하여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설문지 34부를 제외한 973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1991년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김소야자에 의해 이루어진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에서 이용된 설문지 가운데 약물남용실태, 청소년 비행, 가정 역동적 환경관련 부분의 내용을 지역사회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1996년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2일 동안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은 일반적 특성 8문항, 부모와 관련 특성 4문항, 비행과 관련 특성 10문항, 약물남용 실태 관련 특성 10문항, 가정 역동적 환경 관련 특성 37문항으로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약물남용은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진정제, 각성제, 환각제, 흡입제, 마약제의 경우 1회 이상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7가지 약물남용군으로 하였고, 술과 담배는 1년에 1-2회 이상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음주군과 흡연군으로 하였다.

비행경험은 김소야자 등(1993)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가장 흔하다고 한 10가지 비행에 대한 경험유무를 묻는 것으로 심한 반항, 무단결석, 학교에서의 처벌, 가출, 경찰서 보호, 상점에서의 절도, 흥기소지, 음란 비디오 관람, 금품갈취, 패싸움을 경험한 항목에 대해서는 1점, 경험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0점을 주어 전체 10개 항목을 합한 점수를 개인의 비행점수

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높음을 나타낸다.

가정 역동적 환경 관련문항은 가정안정도, 부모자녀관계, 가정만족도, 부친의 양육태도, 모친의 양육태도의 5개 영역으로 각 문항은 부정문이며, '자주 그렇다'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낮을수록 학생들이 가정 역동적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는 .87 이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2) 대상자 부모의 흡연, 음주실태와 약물복용 태도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3)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test를 사용하였다.
- 4) 대상자 부모의 약물관련특성과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test를 사용하였다.
- 5) 대상자의 비행경험과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χ^2 -test를 사용하였다.
- 6)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7)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 비행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8) 가정 역동적 환경과 7가지 약물남용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 남학생 295명(30.3%), 인문계 여학생 287명(29.5%), 실업계 남학생 185명(19.0%), 실업계 여학생 206명(21.2%)으로, 인문계가 59.8%, 실업계가 40.2%를 차지하였다.

학교성적은 '상' 18.2%, '중' 47.7%, '하' 33.4%의 분포를 보였고, 대상자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

서는 '유' 49.0%, '무' 22.9%, '생각해보지 않' 27.5%의 분포를 보였다.

학교생활은 '즐겁다' 21.2%, '차차 흥미가 생긴다' 16.4%, '생각 없이 다닌다' 38.6%, '흥미 없다' 16.4%, '싫다' 6.9%로, 비행친구의 유무에서는 '유' 84.7%, '무' 14.5%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N=973)

특 성	구 분	N(%)	
학교계열	인문계	남	295(30.3)
		여	287(29.5)
	실업계	남	185(19.0)
		여	206(21.2)
학교성적	상	177(18.2)	
	중	464(47.7)	
	하	325(33.4)	
	무응답	7(0.7)	
존경하는 선생님	유	477(49.0)	
	무	223(22.9)	
	생각해보지 않음	267(27.5)	
	무응답	6(0.6)	
학교생활	즐겁다	206(21.2)	
	차차 흥미가 생긴다	160(16.4)	
	생각없이 다닌다	375(38.6)	
	흥미 없다	160(16.4)	
	싫다	67(6.9)	
	무응답	5(0.5)	
비행친구유무	유	824(84.7)	
	무	141(14.5)	
	무응답	8(0.8)	

2. 대상자 부모의 음주, 흡연실태와 약물복용 태도

부의 음주, 흡연 여부에서 '둘다' 50.1%, '음주' 17.1%, '흡연' 15.7%의 순으로 나타나, 82.9%가 음주 혹은 흡연 또는 둘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 비해, 모의 경우 '둘다 안함' 69.8%이며, '음주' 25.2%, '둘다 함' 2.7%로 음주, 흡연 또는 둘다하는 대상자 어머니는 29.2%로 나타났다.

습관적 약물복용을 하는 부모는 11.7%임에 비해 86.4%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태도는 '따른다' 47.5%, '따르려고 노력함' 8.0%로 나타났으며 처방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36.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2>.

<표 2> 대상자 부모의 음주, 흡연실태와 약물복용 태도 (N=973)

특 성	구 분	N(%)
부의 흡연 음주 여부	흡 연	153(15.7)
	음 주	166(17.1)
	둘다 안함	131(13.5)
	둘다 함	488(50.1)
모의 흡연 음주 여부	흡 연	13(1.3)
	음 주	245(25.2)
	둘다 안함	679(69.8)
	둘다 함	26(2.7)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	예	114(11.7)
	아니오	841(86.4)
	무응답	18(1.9)
	부모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태도	따른다
따르려고 노력함		78(8.0)
따르지 않음		351(36.1)
무응답		82(8.4)

3. 대상자의 약물남용실태

음주의 경우 '전혀 마신 적이 없다' 16.7%, '과거에 한 두번 마신 적이 있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29.8%, '1년에 1-2회 정도 마신다' 20.0%, '1달에 1-2회 정도 마신다' 26.4%, '1주일에 1-2회 정도 마신다' 3.0%로 음주경험율은 82.2%이고,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은 52.4%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전혀 피운 적이 없다' 61.8%, '과거에 한두번 피운 적이 있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7%, '1년에 1-2회 피운다' 1.6%, '1주일에 1-2회 피운다' 2.7%, '거의 매일 피운다' 15.0%로 나타나, 흡연경험율은 37.8%이고,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은 20.8%로 나타났다.

진통제 남용의 경우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2.4%,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경우' 2.0%,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5%,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0.8%로 진통제 남용율은 5.7%이며,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0.4%,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에 각각 0.3%, 주 1-2회 사용하는 경우 0.1%로 나타나 남용율은 1.1%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약물남용실태

(N=973)

구 분	특 성	N(%)
음 주	전혀 마신 적이 없다	162(16.7)
	1년에 1-2회 정도 마신다	194(20.0)
	1달에 1-2회 정도 마신다	257(26.4)
	1주일에 1-2회 정도 마신다	29(3.0)
	거의 매일 마신다	29(3.0)
	과거에 한 두번 마신 적이 있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	290(29.8)
	무응답	12(1.1)
흡 연	전혀 피운 적이 없다	601(61.8)
	1년에 1-2회 피운다	16(1.6)
	1달에 1-2회 피운다	15(1.5)
	1주일에 1-2회 피운다	26(2.7)
	거의 매일 피운다	146(15.0)
	과거에 한 두번 피운 적이 있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는다	165(17.0)
	무응답	4(0.4)
진 통 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17(94.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5(0.5)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0(-)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23(2.4)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19(2.0)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8(0.8)
	무응답	1(0.1)
항히스타민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60(98.7)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1(0.1)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3(0.3)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4(0.4)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3(0.3)
	무응답	2(0.2)
수면·진정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30(95.6)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0(-)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12(1.2)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17(1.8)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2(1.2)
	무응답	2(0.2)
각 성 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897(92.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1(0.1)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1(0.1)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9(0.9)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50(5.1)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4(1.5)
	무응답	1(0.1)
환 각 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63(99.0)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0(-)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0(-)

〈표 3〉 계속

(N=973)

구분	특성	N(%)
환각제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3(0.3)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5(0.5)
	무응답	2(0.2)
흡입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37(96.3)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1(0.1)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1(0.1)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19(2.0)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1(1.1)
	무응답	4(0.4)
마약제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965(99.2)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0(-)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1(0.1)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0(-)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5(0.5)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0(-)
	무응답	2(0.2)

수면 진정제 남용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1.8%,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에 각각 1.2%로 4.2%의 남용율, 각성제 남용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5.1%,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5%,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 0.9%,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에 각각 0.1%로 각성제 남용율은 7.7%로 나타났다.

환각제 남용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0.3%,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0.5%로 남용율은 0.8%로, 흡입제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 있다' 2.0%, '과거에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와 '가끔 사용하는 편이다'에 각각 0.1%로 나타나 3.3%의 남용율, 마약제의 경우 '시험적으로 한 두번 사용해 본 적이 있다' 0.5%, '주 1-2회 사용하는 편이다' 0.1%로 0.6%의 남용율을 나타냈다.

4.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상태

학교계열별 음주상태에서, 음주군은 인문계 '남' 31.6%, 인문계 '여' 20.8%, 실업계 '남' 27.0% 실업

계 '여' 20.6%임에 비해, 비음주군은 인문계 '남' 28.9%, 인문계 '여' 39.1%, 실업계 '남' 10.4% 실업계 '여' 21.6%로 나타나, 인문계 남학생은 음주군이 비음주군 보다 2.7% 많음에 비해, 실업계 남학생은 16.6% 많이 분포하였으며, 인문계 여학생은 비음주군이 음주군보다 18.3% 더 많이 분포하였고 실업계 여학생은 비슷한 분포를 하였다($\chi^2=62.97, p<.01$).

학교성적별 음주상태에서, 음주군의 경우 성적이 높은군은 15.6%, 낮은군은 42.1%임에 비해, 비음주군은 높은군이 21.4%, 낮은군이 24.4%로 나타나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33.86, p<.001$),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와 음주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생활에서 음주군의 경우, '생각 없이 다닌다' 42.9%, '흥미 없다' 16.2%, '싫다' 8.7%로 부정적인 생각이 67.8%이며, 비음주군의 경우 '생각 없이 다닌다' 34.3%, '흥미 없다' 16.9%, '싫다' 4.8%로 56.0%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chi^2=19.04, p<.001$), 비행 친구 유무에서 음주군의 경우, '무' 58.7% '유' 41.3%, 비음주군의 경우 '무' 82.4%, '유' 17.6%로 나타나 음주군의 경우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비음주군에 비하여 많았고, 비음주군의 경우 비행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음주군에 비하여 많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64.72, p<.001$)〈표 4〉.

〈표 4〉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 상태

(N=973)

구 분	특 성	음주군 명(%)	비음주군 명(%)	χ ²	
학교계열	인문계	남	161(31.6)	134(28.9)	62.97**
		여	106(20.8)	181(39.1)	
	실업계	남	137(27.0)	48(10.4)	
		여	105(20.6)	100(21.6)	
학교성적	상	79(15.6)	98(21.4)	33.86***	
	중	214(42.3)	249(54.2)		
	하	213(42.1)	112(24.4)		
존경하는 선생님	유	248(49.0)	228(49.6)	2.96	
	무	108(21.3)	115(25.0)		
	생각해보지않음	150(29.7)	117(25.4)		
학교생활	즐겁다	92(18.2)	114(24.7)	19.04***	
	차차 흥미가 생긴다	71(14.0)	89(19.3)		
	생각 없이 다닌다	217(42.9)	158(34.3)		
	흥미 없다	82(16.2)	78(16.9)		
	싫다	44(8.7)	22(4.8)		
비행친구	유	209(41.3)	81(17.6)	64.72***	
	무	297(58.7)	380(82.4)		

(무응답 제외)

** p<.01, *** p<.001

5. 대상자의 특성과 흡연상태

학교계열별 흡연상태는, 흡연군이 실업계 ‘남’ 46.8%, 인문계 ‘남’ 31.5%, 실업계 ‘여’ 14.8%, 인문계 ‘여’ 6.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흡연군은 각각 11.7%, 30.0%, 22.9% 그리고 35.4%로 나타나, 실업계 남학생의 흡연군과 비흡연군 차이는 35.1%임에 비해 인문계 남학생은 두군이 비슷한 분포를 하였다(χ²=153.65, p<.001). 학교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군의 흡연비율이 57.9%, 성적이 높은군의 흡연비율이 10.9%, 비흡연군의 성적이 낮은군 27.2% 성적이 높은군 20.3%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²=67.53, p<.001).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서 흡연군의 경우 ‘생각해보지 않았다’ 43.6%, 비흡연군의 23.4%보다 많았고, 비흡연군의 경우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학생이 52.9%로 흡연군의 35.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χ²=33.80, p<.001), 학교생활에서 흡연군의 경우 ‘생각 없이 다닌다’ 50.7%, ‘흥미없다’ 15.3%, ‘싫다’ 13.8%로 부정적인 생각이 79.8%로, 비흡연군의 57.6%(‘생각 없이 다닌다’ 35.6%, ‘흥미없다’ 16.9%, ‘싫다’ 5.1%)보다 많았고, 비흡연군의 경우 ‘즐겁다’

24.7%, ‘차차 흥미가 생긴다’ 17.8%로 긍정적 생각이 42.4%에 비해 흡연군의 20.2% (‘즐겁다’ 8.4%, ‘차차 흥미가 생긴다’ 11.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흡연 군에서는 생각 없이 다닌다, 싫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비흡연군에서는 즐겁다, 차차 흥미가 생긴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χ²=50.87, p<.001). 비행친구 유무에서 흡연군의 경우 ‘유’ 56.4%, ‘무’ 43.6%로, 비흡연군의 경우 ‘유’ 23.0%, ‘무’ 77.0%로 나타나 흡연군에서는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비흡연군에서는 비행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χ²=85.28, p<.001)〈표 5〉.

6. 대상자의 특성과 7가지 약물남용 상태

대상자의 특성과 7가지 약물남용 상태에서, 약물남용군은 실업계 ‘여’ 32.1%, 인문계 ‘남’ 27.2%, 실업계 ‘남’ 26.5%, 인문계 ‘여’ 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물비남용군은 인문계 ‘남’ 31.3%, 실업계 ‘남’ 29.9%, 인문계 ‘여’ 19.9%, 실업계 ‘여’ 18.9%로 나타났고(χ²=14.65, p<.01).

학교성적별 약물남용상태는 성적이 낮은군의 약물남용 비율이 44.1%, 성적이 높은군의 약물남용 비율

〈표 5〉 대상자의 특성과 흡연상태

(N=973)

구분	특성	흡연군 명(%)	비흡연군 명(%)	χ^2	
학교계열	인문계	남	64(31.5)	231(30.0)	153.65***
		여	14(6.9)	273(35.4)	
	실업계	남	95(46.8)	90(11.7)	
		여	30(14.8)	176(22.9)	
학교성적	상	22(10.9)	155(20.3)	67.53***	
	중	63(31.2)	401(52.5)		
	하	117(57.9)	208(27.2)		
존경하는 선생님	유	72(35.6)	405(52.9)	33.80***	
	무	42(20.8)	181(23.7)		
	생각해 보지 않음	88(43.6)	179(23.4)		
학교생활	즐겁다	17(8.4)	189(24.7)	50.87***	
	차차 흥미가 생긴다	24(11.8)	136(17.7)		
	생각없이 다닌다	103(50.7)	272(35.6)		
	흥미 없다	31(15.3)	129(16.9)		
	싫다	28(13.8)	39(5.1)		
비행친구	유	114(56.4)	176(23.0)	85.28***	
	무	88(43.6)	590(77.0)		

(무응답 제외)

*** $p < .001$

11.2%로 나타나 약물비남용군의 성적이 낮은군 31.1% 성적이 높은군이 19.9%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2.89, p<.01$),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서 약물남용군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30.6%로 약물비남용군의 21.5%보다 높았고, 약물비남용군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1.3%로 약물남용군 40.0%보다 높았고($\chi^2=8.46, p<.05$), 약물남용과 학교생활과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행친구 유무에서 약물남용군에서 '유' 45.6%, '무' 54.4%로, 약물비남용군에서는 '유' 61.0%, '무' 26.8%로 나타나 약물남용군에서는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약물비남용군에서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42, p<.001$)〈표 6〉.

7. 부모의 약물복용 태도와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 상태

부모가 습관적 약물복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 18.4%, 비남용군에서 10.5%로($\chi^2=7.78, p<.01$), 부모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태도는 남학생의 경우,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 52.5%, '처방에 따른다' 35.6%, '처방에

따르려 노력한다' 11.9%로 응답하였고, 7가지 약물비남용군에서는 '처방에 따른다' 53.2%,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 37.8%, '처방에 따르려 노력한다' 9.0%로 응답하여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는 부모의 약물복용태도가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약물비남용군에서 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나($\chi^2=6.33, p<.05$),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태도와 7가지 약물남용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8.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 비행경험

음주여부와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음주군이 평균 2.87로 비음주군의 1.4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음주군이 비음주군 보다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t=-12.53, p<.001$), 흡연여부와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흡연군의 평균이 4.34로 비흡연군의 1.66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흡연군이 비흡연군 보다 비행경험이 많은 것으로($t=-15.98, p<.001$), 7가지 약물남용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3.14로 약물비남용군의 2.01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 보다 비행경험이 많

〈표 6〉 대상자의 특성과 약물남용 상태

(N=973)

구 분	특 성	약물남용군 명(%)	약물비남용군 명(%)	χ^2	
학교형태	인문계	남	44(27.2)	251(31.3)	14.65**
		여	43(14.2)	240(19.9)	
	실업계	남	23(26.5)	160(29.9)	
		여	52(32.1)	152(18.9)	
학교성적	상	18(11.2)	159(19.9)	12.89**	
	중	72(44.7)	391(49.0)		
	하	71(44.1)	248(31.1)		
존경하는 선생님	유	64(40.0)	410(51.3)	8.46*	
	무	49(30.6)	172(21.5)		
	생각해 보지 않음	47(17.7)	218(27.3)		
학교생활	즐겁다	29(17.9)	175(21.9)	8.25	
	차차 흥미가 생긴다	29(17.9)	131(16.4)		
	생각 없이 다닌다	76(46.9)	294(36.8)		
	흥미 없다	21(13.0)	138(17.3)		
	싫다	7(4.3)	60(7.5)		
비행친구	유	73(45.6)	586(61.0)	22.42***	
	무	87(54.4)	215(26.8)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표 7〉 부모의 약물복용태도와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 상태

(N=973)

구 분	약물남용군 명(%)	약물비남용군 명(%)	χ^2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여부				
	예	29(18.4)	83(10.5)	7.78**
	아니오	129(81.6)	707(89.5)	
남				
	부모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태도			
	따른다	21(35.6)	201(53.2)	6.33*
	따르려 노력함	7(11.9)	34(9.0)	
따르지 않는다	31(52.5)	143(37.8)		
여				
	부모의 처방에 따른 약물복용 태도			
	따른다	49(53.6)	187(51.8)	1.12
	따르려 노력함	5(5.9)	30(8.3)	
따르지 않는다	31(36.5)	144(39.9)		

(무응답 제외)

*p<.05, **p<.01

은 것으로 나타났다($t = -5.77, p < .001$) <표 8>.

<표 8>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과 비행경험 (N=973)

구 분	비행경험 M(±SD)	t
음주군	2.87(±2.09)	-12.53***
비음주군	1.48(±1.27)	
흡연군	4.34(±2.27)	-15.98***
비흡연군	1.66(±1.28)	
7가지 약물남용군	3.14(±2.33)	- 5.77***
7가지 약물비남용군	2.01(±1.69)	

(무응답 제외)

*** $p < .001$

9.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 상호관계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관계에서, 음주와 흡연($r = .4166, p < .001$), 음주와 7가지 약물남용($r = .2200, p < .001$), 7가지 약물남용과 흡연($r = .1428, p < .05$)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r = .5977, p < .001$), 음주와 약물남용($r = .2849, p < .001$), 약물남용과 흡연($r = .1171, p < .05$)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r = .4219, p < .001$), 음주와 약물남용($r = .2611, p < .001$), 약물남용과 흡연($r = .1764, p < .001$) 간에 상관관계 있었다. 즉 음주를 많이 하는 남 녀학생이 흡연과 약물남용을 많이 하고, 흡연을 많이 하는 남 녀학생이 약물남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10.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간의 관계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간의 상관관계에서, 음주와 가정안정도($r = .0709, p < .05$), 음주와 부모자녀관계($r = .1321, p < .01$), 음주와 모친의 양육태도($r = .0704, p < .01$), 흡연과 부모자녀관계($r = .0813, p <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음주와 가정안정도($r = .1457, p < .01$), 음주와 부모자녀관계($r = .2147, p < .001$)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흡연과 가정안정도($r = .1544, p < .01$), 흡연과 부모자녀관계($r = .2018, p < .01$)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음주와 흡연을 많이

<표 9> 대상자의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

상호관계

(N=973)

구 분	음 주	흡 연	7가지 약물남용
음 주	1.0000		
흡 연	.4166***	1.0000	
7가지 약물남용	.2200***	.1428*	1.0000
남 음 주	1.0000		
남 흡 연	.5977***	1.0000	
남 7가지 약물남용	.2849***	.1171*	1.0000
여 음 주	1.0000		
여 흡 연	.4219***	1.0000	
여 7가지 약물남용	.2611***	.1764***	1.0000

(무응답 제외)

* $p < .05$, *** $p < .001$

하는 남학생이 가정안정도와 부모자녀관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여학생의 경우 음주와 부모 자녀관계($r = .1121, p < .05$), 음주와 모친의 양육태도($r = .0988, p < .05$), 흡연과 부모 자녀관계에서($r = .0940, p < .05$)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음주를 많이 하는 여학생이 부모 자녀관계와 모친의 양육태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을 많이 하는 여학생이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11. 가정 역동적 환경과 7가지 약물남용 상태

가정 안정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17.71로 약물비남용군의 18.42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가정안정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t = 2.23, p < .05$), 부모 자녀관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32.55로 약물비남용군의 34.70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t = 4.34, p < .001$), 가정만족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17.17로 약물비남용군의 19.11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가정만족도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t = 4.02, p < .001$), 부친의 양육태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17.91로 약물비남용군의 19.24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부친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t = 3.04, p < .01$), 모친의 양육태도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21.17로 약물비남용군의 22.29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

<표 10>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간의 상관관계

(N=973)

구 분	가정 안정도	부모 자녀관계	가정 만족도	부친의 양육태도	모친의 양육태도
음 주	.0709*	.1321**	.0124	.0767	.0704*
흡 연	.0248	.0813*	.0470	.0562	.0736
남 음 주	.1457**	.2147***	-.0369	.0883	.0605
흡 연	.1544**	.2018**	.1087	.0311	.0764
여 음 주	.0838	.1121*	.0796	.0499	.0988*
흡 연	.0484	.0940*	.0497	.0431	.0547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표 11> 가정 역동적 환경과 7가지 약물남용 상태

(N=973)

구 분	7가지	7가지	t
	약물남용군 M(±SD)	약물비남용군 M(±SD)	
가정안정도	17.71(±3.72)	18.42(±3.17)	2.23*
부모 자녀관계	32.55(±6.01)	34.70(±5.52)	4.34***
가정만족도	17.17(±4.37)	19.11(±3.94)	4.02***
부친양육태도	17.91(±5.18)	19.24(±4.97)	3.04**
모친양육태도	21.17(±4.85)	22.29(±4.45)	2.87**
가정 역동적 환경	106.47(±20.46)	114.77(±16.94)	3.93**

(무응답 제외)

*p<.05, **p<.01, ***p<.001

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모친의 양육태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t=2.87, p<.01), 가정 역동적 환경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106.47로 약물비남용군의 114.77보다 낮게 나타나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가정 역동적 환경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3, p<.01)<표 11>.

IV. 논 의

1. 약물남용실태의 분석

대상자의 음주경험율은 83%이고,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은 52.4%로 나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소야자(1991)의 연구의 음주경험율 52.7%, 이숙련(1995)의 57.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Johnston 등(1989)의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92.0%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연경험율은 37.8%,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은 20.8%로 나타나, 각 연구별 대상자의 차이는

있으나, 김소야자(1991)의 연구에서 흡연경험율 29.0%, 이숙련(1995)의 연구의 35.3%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최한곤(1992)의 연구에서 46.8% 다소 낮게 나타났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남용하고 쉽게 구할 있고, 알코올과 니코틴은 정신 신체적 의존이 강하여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시초가 될 수 있으므로 술과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금주, 금연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대상자의 진통제 남용율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비마약성 진통제이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야자, 1991; 주왕기, 1995). 메스컴의 과도광고에 의해 약물에 쉽게 친숙해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 광고 및 판매과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대상자의 항히스타민제 남용율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주왕기의 1990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0.4%보다 높았고, 황영숙(1990)의 부산 진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1.6%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히스타민제는 청소년들이 공부나 긴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남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대상자의 수면. 진정제 남용율은 4.2%로 이는 김소야자(1991)의 연구에서 수면·진정제 사용율 1.8%보다 높게 나타났고, 고흥경(1990)의 연구에서 신경안정제 4.9%, 수면제 7.9%, 미국의 신경안정제 9.4%, 수면제 7.8%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들 약물이 인근 약국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약물들 중의 하나인 만큼 처방없이 이들 약물을 구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상자의 각성제 남용율은 7.7%로 나타나, 이는 김소야자(1991) 연구의 각성제 남용율 6.6%보다 다소 높았으며, 고흥경(1990)

의 23.9% 보다 낮았다. 이길홍 등(1989)은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수면시간을 줄이기 위해 삼승적으로 각성제를 남용한다고 보고하여 각성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대상자의 환각제 남용율은 0.8%로 이는 권순경(1990)의 0.5%, 김소야자(1991)의 0.7%, 전국 학교 청소년, 근로청소년, 소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나타난 대구지역 환각제 남용율 6.5%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흡입제 남용은 3.3%로, 이는 고흥경(1990)의 본드흡입 5.7%와 최한곤(1992)의 연구에서 3.7%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검찰통계에 따르면 흡입제 사범의 86%가 미성년자이며 사범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흡입제는 Tube, Can, 또는 Plastic bag에 넣어서 흡입하거나 손수건 등과 같은 천에 묻혀서 흡입하게 되면 대개 흡입후 5분 이내에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나며(청소년 백서, 1996), 흡입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약물관련 예방대책 수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상자의 마약제 남용율은 0.6%로 고흥경(1990)의 연구 0.6%와 같게 나타났으며, 김소야자(1991)의 0.6%와 같게 Johnston(1989)의 8.6%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주왕기(1995)는 현재의 법 규제 하에서는 마약이 학생들 손에 닿기가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남용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음주, 흡연을 제외한 7가지 약물남용율은 10%이내의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선화(1996)는 청소년은 일단약물에 접촉되고 난 다음에는 약물남용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약물경험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대상자의 특성과 음주, 흡연 및 7가지 약물남용 상태

본 연구에서 학교계열과 음주, 흡연 및 7가지 약물남용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숙련(1996)의 학교계열별 학생의 음주경험, 흡연경험, 7가지 약물남용의 비교에서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음주경험, 흡연경험, 약물남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계 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기성 사회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성적과의 관계에서 음주군, 흡연군 및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 학교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비음주군, 비흡연군, 7가지 약물남용군에 비하여 많았다. 강운주, 서성제(1996)의 연구에서 흡연군에서 학교 성적이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비흡연군에 비하여 많았고, 권순경(1989)의 연구에서는 학교성적이 나쁠수록 약물사용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1989)의 연구에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각성제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학교성적과 음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 약물남용과 학교성적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경하는 선생님의 유무에서, 흡연군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비흡연군에 비하여 많았다. 김성이 등 (1989)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존경하는 선생님 유무간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의 경우에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존경하는 선생님과의 음주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사회문화적으로 제사나 친척 모임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어 일찍부터 음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7가지 약물남용군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없어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김성이 등(1989)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 경우 각성제의 사용이 많았다고 하였다.

학교생활과의 관계에서 음주군의 경우 학교생활에 흥미가 없거나 생각 없이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흡연군에서는 생각 없이 다닌다, 싫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비음주군의 경우 학교생활에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비흡연군에서는 즐겁다 또는 흥미가 생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Kalthleen와 Robert(1993)는 학교생활태도가 부정적인 학생들이 술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고, 강운주, 서성제(1996)의 연구와, 이윤지, 이정애(1992)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약물남용과 학교생활과의 관계에서는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김소야자(1991)는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에게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대부분이 단순한 약물남용 학생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비행친구 유무에서 약물남용을 하는 경우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약물남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행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김성이 등(1989)의 학교에 의해 처벌받은 친구 수와 음주, 흡연, 각성제, 본드사용, 대마초사용은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여 청소년기에 있어 약물남용과 비행친구 유무간에는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여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3. 부모의 약물복용 태도와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 상태

부모가 습관적 약물복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7가지 약물남용군에서 약물비남용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7가지 약물 남용군의 부모가 비남용군의 부모에 비하여 처방에 따라 약물 복용을 한다는 비율이 낮았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약물복용태도와 7가지 약물남용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김현수(1988)는 부모들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면, 청소년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약물습관을 배우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4. 음주, 흡연, 7가지 약물남용에 따른 대상자의 비행 경험과의 관계

음주와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흥경(1990)의 연구에서도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가출, 흥기소지 등의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왕기(198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흡연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흡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숙경(1992)은 흡연경험 학생의 비행은 술집출입 80.9%, 음란비디오 관람 74.2%, 무단결석 32.7%순으로 나타났다. 7가지 약물남용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서 7가지 약물남용군이 약물비남용군에 비하여 비행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숙경(1992)은 약물사용자의 비행행위는 음란비디오관람, 술집출입, 무단결석이 높다고 하였고, 고흥경(1990)은 비행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이 비행행위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약물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

다고 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청소년 약물남용과 비행중 어떤 것이 선행요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사이에 유의한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약물남용예방 교육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흡연, 음주, 7가지 약물남용과의 상호관계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 음주와 7가지 약물남용, 흡연과 7가지 약물남용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이(1989)는 약물간의 상관관계에서 음주는 흡연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김소야자(1991)는 흡연과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약물사용군의 비율이 높고, 권순경(1989)은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이 신경안정제, 각성제, 대마초, 본드의 사용율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최초에 담배나 술 등의 가벼운 약물을 사용해서 점차 강도가 높은 약물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음주, 흡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심각한 약물남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단계적인 예방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가정 역동적 환경과 흡연, 음주, 7가지 약물남용 상태

남학생의 경우 흡연과 가정안정도, 부모자녀관계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음주와 가정안정도, 부모자녀관계에서, 여학생의 경우 흡연과 부모자녀관계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음주와 부모자녀관계, 모친의 양육태도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Cahalan와 Room(1974)은 남자의 경우 부모들의 자녀양육태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가 너무 지배적일 수록, 후일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나철 등(1984)은 부모자녀관계와 부친의 양육태도가 남자의 알코올 섭취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여학생의 경우에서만 상관관계가 있었다. 고흥경(1990)은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응답한 학생에서 음주경험율이 높았고,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이 흡연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서 가정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김성이(1989)는 부모의 화목도와 흡연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부모가 아주 화목한 가정의 청소년 중 흡연을 하는 경우는 22.7%임에 비해, 부모가 자주 싸우는 경우는

65.7%나 흡연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화목도와 유사한 영역인 가정만족도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과의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캠프, 백일주, 가족모임 등의 형태로 음주나 흡연에 많이 접하고 있고, 핵가족화나, 부모의 많은 사회활동, 이혼율 증가 등으로 인한 가족의 영향력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 역동적 환경의 전영역에서 약물남용군의 평균이 약물비남용군의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이길홍 등(1991)의 연구에서 가정심리풍토 가운데 가정안전도, 부모의 기대수준, 가족간 마찰, 가족의 가정만족도, 모친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약물사용군이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는 것과 비슷하였다. 또한 고흥경(1990)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본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해제를 남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각성제, 본드, 수면제, 신경안정제, 진해제 남용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가정만족도가 낮았다. 김소야자 등(1991)의 연구에서는 가정안전도, 부모자녀관계, 가정만족도, 부친의 양육태도, 모친의 양육태도에서 약물사용군이 약물비사용군 보다 부정적으로 가정생활풍토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이미 청소년의 개별 문제가 아닌 학교와 가정, 사회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개별적 접근이 아닌 다각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간호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신학 등 학제간의 다각적 연구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청소년 약물남용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효율적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자료는 대구시내 소재 10개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73명을 대상으로 1996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김소야자(1991)의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PC⁺에 의해 전산처리 되었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χ^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결 론

- 1) 각 약물별 남용실태는 음주 52.4%, 흡연 20.8%, 진통제 5.7%, 항히스타민제 1.1%, 수면·진정제 4.2%, 각성제 7.7%, 환각제 0.8%, 흡입제 3.3%, 마약제 0.6% 순으로 나타나 음주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특성별 음주상태는, 학교계열별($\chi^2=62.97$, $p<.01$), 학교성적별($\chi^2=33.86$, $p<.001$), 학교생활별($\chi^2=19.04$, $p<.01$), 비행 친구 유무별($\chi^2=64.72$, $p<.001$)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 3) 대상자의 특성별 흡연상태는, 학교계열별($\chi^2=153.65$, $p<.001$), 학교성적별($\chi^2=67.53$, $p<.001$), 존경하는 선생님 유무별($\chi^2=33.80$, $p<.001$), 학교생활별($\chi^2=50.87$, $p<.001$), 비행 친구 유무별($\chi^2=85.28$, $p<.001$)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 4) 대상자의 특성별 7가지 약물남용상태는 학교계열별($\chi^2=14.65$, $p<.01$), 학교성적별($\chi^2=12.89$, $p<.01$), 존경하는 선생님 유무별($\chi^2=8.46$, $p<.05$), 비행 친구 유무별($\chi^2=22.42$, $p<.001$)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 5)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유무와 학생의 7가지 약물남용($\chi^2=7.78$, $p<.01$), 남학생의 경우 부모의 약물복용태도와 대상자의 7가지 약물남용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chi^2=6.33$, $p<.05$).
- 6) 음주($t=-12.53$, $p<.001$), 흡연($t=-15.98$, $p<.001$), 7가지 약물남용($t=-5.77$, $p<.001$) 과 대상자의 비행경험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7) 흡연, 음주, 7가지 약물남용과의 상호관계에서, 음주와 흡연($r=.4166$, $p<.001$), 음주와 7가지 약물남용($r=.2200$, $p<.001$), 흡연과 7가지 약물남용($r=.1428$, $p<.05$)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r=.5977$, $p<.001$), 음주와 7가지 약물남용($r=.2849$, $p<.001$), 흡연과 7가지 약물남용($r=.1171$, $p<.05$)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고, 여학생의 경우 음주와 흡연($r=.4219$, $p<.001$), 음주와 7가지 약물남용($r=.2611$, $p<.001$), 흡연과 약물남용($r=.1764$, $p<.001$) 사

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8) 가정 역동적 환경과 음주, 흡연 상태와의 관계에서, 음주와 가정안정도($r=.0709, p<.05$), 음주와 부모 자녀관계($r=.1321, p<.01$), 음주와 모친의 양육태도($r=.0704, p<.05$), 흡연과 부모 자녀관계($r=.0813, p<.05$)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학생의 경우 음주와 가정안정도($r=.1457, p<.01$), 음주와 부모 자녀관계($r=.2147, p<.001$), 흡연과 가정안정도($r=.1544, p<.01$), 흡연과 부모 자녀관계($r=.2018, p<.01$), 여학생의 경우 음주와 부모 자녀관계($r=.1121, p<.05$), 음주와 모친의 양육태도($r=.0988, p<.05$), 흡연과 부모 자녀관계($r=.0940, p<.05$)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 9) 가정 역동적 환경과 7가지 약물남용 상태와의 관계에서 가정 안정도($t=2.23, p<.05$), 부모 자녀관계($t=4.34, p<.001$), 가정만족도($t=4.02, p<.001$), 부친의 양육태도($t=3.04, p<.01$), 모친의 양육태도($t=2.87, p<.01$)에서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약물에 대한 광고, 유통경로에 대한 전 국가차원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 약물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및 지속적인 사용의 진행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3) 고등학교 2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약물남용실태와 약물남용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약물남용에 대응 할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학교내 양호교사를 통한 심도있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호교사와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지속적, 효율적 상담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5) 목회 간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미 약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전인적 상담을 통한 내적 치유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운주, 서성제(1996). 청소년 흡연과 관련요인 -서울시 일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1), 28-44.
- 고흥경(1990).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경(1990). 중.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약학논문지, 1, 1-28.
- (1988). 중.고등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약학연구소.
- 김광일, 신태송(1974). 약물남용의 최근 동향. 대한의학회지, 17(3)
- 김성이 등(1989).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3), 487-503.
- 김소야자(1991). 청소년 약물남용실태. 체육청소년부.
- 김숙경(1992). 청소년의 약물 사용과 비행실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민병근, 김현실(1992). 청소년 비행과 성격양상 및 가족역동간의 관계. 울산의대학술지, 1(1), 188-205.
- 김혜란(1994).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생태 체계적 개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철, 이길홍, 민병근(1984). 학생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문제 행동 유형간의 관계분석. 중앙의대지, 9(4), 561-582.
-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지도서.
- 민병근, 김현수(198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신경정신의학, 4, 605-613.
- 민병근, 백병기(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 사용 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대한 사회정신의학적연구. 신경정신의학, 20, 234-248.
- 변상호, 이태복, 이연수(1978). '청소년의 습관성 약물 등의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국립과화수사연구소 연보, 13, 32-36
- 박영숙(1992).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경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1993). 학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교재.
-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1990). 약물 오·남용 예방지.
- 서울시교육연구원(1988).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서.
- 이길홍, 이재광, 나철, 박두병, 김현수, 민병근(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 상관 변인 분석. 한국의 과학, 17, 130-147.
- 이길홍(1989). 한국 청소년의 정신 활성 물질 사용 장애에 관한 역학적 고찰. 한국의과학, 21(1),
- 이길홍, 이재광, 김현수, 민병근(1983). 접착제, 본드 흡입으로 인해 입원한 청소년 정신장애. 한국의 과학, 15(3), 214-225.
- 이길홍, 박두병, 나철, 이재광, 기백석, 이재우, 유영식, 이영식, 이헌재(1991). 범법 정신장애자와 일반정신 장애자의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의과학, 23(1), 82-110
- 이숙련(1995). 부산시내 중·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광(1985). 청소년 비행의 약물상관 변인분석. 한국의과학, 17(2), 131-132.
- 장영주(1991).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행위와 관련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왕기(1989). 약물남용. 도서출판 세계사.
(1990). 약물남용. 한국약물남용 연구소.
(1995).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박영물 출판사.
-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백서.
- 최선화(1996).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청소년과 약물남용. 흥익사
- 최연아(1987).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한근(1992).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 대구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새마을 지역개발 연구, 15, 107-125.
-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지침서.
- 황영숙(1990). 청소년의 약물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학회(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 경제적 영향 연구.
- Andrews, J.A., Hops, H., Ary, D., Lichtenstein, E., & Tildesley, S(1991). The construction, validation and use of a Guttman scale of adolescent substance use : An investig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Journal of Drug Issues, 21, 557-572.
- Barbara Schoen Johnson(1993). Adaptation & growth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Third, Edition J. B. Lippincott company.
- Chinlund, S(1974). Juvenile offenders and the drug problem, in problems of Adolescents. Ed. by Hard, R. E. and Cull, J. G. Illinois Thomas.
- Connel, P.H(1979).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 Community Health, 6,29-33.
- Ellickson, P.L. & Bell, R.M.(1990). Drug Prevention in junior High : A multi-site longitudinal test. Science, 247, 1299-1305.
- Elliot, M.A(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newbury park ; Sagepub, Inc.
- Flay, B.R., Koepke, D.(1989). Six-year follow-up of the first waterloo School smoking prevention trial.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9(10), 1371-1376.
- Friedman, a.s., & Utada, a.t(1992). Effects of two group intersction models on substance-using adjudicated adolescent ma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349-374.
- Helman, C(1984). Culture, health and illness : An introduction for health professional Bristol, England. John Wright & Sons Ltd.
- Hunt, K. G(1974). Perental permissiveness as percieved by the offspring and the degree of marijuana usage among offspring. Human Relation, 27, 258-267.
- Johnson(1986). Objectives of community programs to prevent drug abuse. School Health, 359-363.
- Johnston, L.D., & O'Malley, P.M., & Bachman, J.D(1989). Illicit drug use, smoking, and drinking by America's high school student,

- college student, and young adults, 1975-1988.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ublication No. 89-1638.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 Kandel D. et al(1975). Sequence and stages in patterns of adolescent drug abuse. Arch Gen Psychiatry, 32, 923-932.
- Kathleen, A. & Rorert, J.B(1993). Predicting alcohol use in rural children : A longitudinal study. N.R, 42(2), 79-86.
- Knight, R.P(1937). The dynamics of chronic alcoholism.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86.
- Le Blanc, M.(1992). Family dynamics, adolescent delinquency, and adult criminality. Psychiatry 55, 11, 336-353.
- Macdonald, D.I.(1984). Drugs, Drinking and Adolescents.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Chicago.
- Maloff, D., & Becker, H.(1982). Informal Social Control and Their Influence on Substance Use, in Control over Intoxicant Use. Edited by Einberg N and Hardin, W. M., Human Science Press, New York.
- Newcomb, M.(1983). Mothers 'influence on the drug use of thei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 714-726.
- Newcomb, M.D., Maddahan, E., & Bentler, P.M. (1986). Risk factors for drug use among adolescents :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nalys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5), 525-531.
- Plant, M.A.(1975). "Drug takers in English iowa".
- Reilly, D.M.(1978). Family factors in the etiology and treatment of youthful drug abuse. Family Therapy, 2, 149-171.
- Sandra A. Brown.(1989). Life events of adolescents in relation to personal parental substance abuse. J. of Clinical & Consulting Psychology, 146(4), 484-489.
- Stanhope, M, Lancaster, J(1996). Community health nursing, 4th edition. Mosby. 709-729.
- Swadi, H(1992). Relative risk factors in detecting adolescent drug use.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9, 252-254.
- Tarter, R.E.(1988). Are There Inherited Behavioral Traits That Predispose to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 Textor M.R(1987). Family therapy with drug addicts : an integrated approach. AM J Orthopsychiaty, 57(4), 495-507.
-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fourth edition.
- West, D.J. & Farrington, D.P(1977). The delinquent way of life. Third report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1st, ed, London & Edinburgh Morrison & Gibb Ltd. 1-2, 46-49.
- Wills, T. A., Vaccaro, D., & Mcnamara, G(1992). The role of life event, family support, and competence in adolescent substance use. A test of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349-374.

— Abstract —

Key Words : Drug Abuse, delinquent friend

A Cross-sectional Survey on Drug Abuse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Taegu City

Lee, Hyun Sook* · Kim, Chung Nam**

Oh, Y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rug abuse and to find related factors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973 students from 10 high schools in Taegu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30, 1996 to October 30, 1996.

The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m Soyoaja (1991) surveyed adolescent drug use and questions on smoking and drinking were readjusted and add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review.

The data was analyzed using frequency, percentage, χ^2 -test,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the SPSS /PC+.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drank alcohol 1-2 times or more per year was 52.4% and smoked Cigarette 1-2 times or more per year was 20.8%. The 7 different drugs (Analgetics 5.7%, sleeping pills and sedatives 4.2%, antihistamines 1.1%, stimulants 7.7%, hallucinogens 0.8%, inhalants 3.3%, and narcotics 0.6%) were also evaluated.
2.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rinking and type of school ($\chi^2=62.97$, $p<.01$), grades ($\chi^2=33.86$, $p<.001$), school life ($\chi^2=19.04$, $p<.001$), and delinquent friends ($\chi^2=64.72$, $p<.001$).
3.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type of school ($\chi^2=153.65$, $p<.001$), grades ($\chi^2=67.53$, $p<.001$), their respect for teachers ($\chi^2=33.80$, $p<.001$), school life ($\chi^2=50.87$, $p<.001$), and delinquent friends ($\chi^2=85.28$, $p<.001$).
4.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and type of school ($\chi^2=14.65$, $p<.01$), grades ($\chi^2=12.89$, $p<.01$), their respect for teachers ($\chi^2=8.46$, $p<.05$), and delinquent friends ($\chi^2=22.42$, $p<.001$).
5.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s habitual drug abuse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chi^2=7.78$, $p<.01$), as well as a parent's attitude toward drugs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chi^2=6.33$, $p<.05$).
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rinking ($t=-12.53$, $p<.001$), smoking ($t=-15.98$, $p<.001$),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t=-5.77$, $p<.001$), and the respondent's delinquent experience.
7.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r=.4166$, $p<.001$), drin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2200$, $p<.001$), smo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1428$, $p<.05$).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r=.5977$, $p<.001$), drin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2849$, $p<.001$), smo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1711$, $p<.05$) among male student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smoking ($r=.4219$, $p<.001$), drin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2611$, $p<.001$), smoking and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r=.1764$, $p<.001$) among female students.
8.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family stability ($r=.0709$, $p<.05$), drink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r=.1321$, $p<.01$), drinking and mother's rearing attitude ($r=.0704$,

* Nurse, Dong-San Hospital

** Professor,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 Assistant,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p < .05$), smo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r = .0813$, $p < .05$).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family stability($r = .1457$, $p < .01$), drin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r = .2147$, $p < .001$), smoking and family stability($r = .1544$, $p < .01$), smo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r = .2018$, $p < .01$) among male students.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drinking and family stability($r = .1121$, $p < .05$), drinking and mother's rearing attitude($r = .0988$, $p < .05$), smo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r = .0940$, $p < .05$) among female students.

9.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7 different kinds of drug abuse and family stability ($t = 2.23$, $p < .05$), parent-child relationships($t = 4.34$, $p < .001$), satisfaction with family ($t = 4.02$, $p < .001$), father's rearing attitude($t = 3.04$, $p < .01$), mother's rearing attitude($t = 2.87$, $p < .01$).

The distribution channel of drugs including alcohol beverages and cigarettes should be evaluated and restructured to discourage student's temptation and to limit accessibility. The step by step preventive teaching on alcohol drinking and cigarette smoking is needed from middle school to help prevent further drug abuse.